

이중언어 일본 옛날 이야기

글: 하마 나츠키 그림: 요코야마 요헤이

 <p>우라시마 타로</p>	 <p>카구야 공주</p>	 <p>삿갓 지장보살</p>
 <p>원숭이와 게</p>	 <p>두루미 아내</p>	 <p>꽃 피우는 할아버지</p>

バイリンガル にほんむかしばなし

ぶん はま なつこ え : よこやま ようへい

한국어와 일본어
かんこくご と にほんご

목 차

우라시마 타로	6
카구야 공주	22
삿갓 지장보살	38
원숭이와 게	52
두루미 아내	68
꽃 피우는 할아버지	82

< 시작하며 >

2003 년,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어머니가 “일본에서는 내 모국어가 필요 없네요.”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언어가 그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9 년부터 다국어 전자 그림책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2015 년, 일본의 옛날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다는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6 개의 이야기를 9 개 언어로 번역, 음역해서 멀티미디어 형식의 데이지 전자 그림책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 년과 2021 년에는 이것을 DVD 로 제작해 전국의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2022 년 1 월, 인쇄된 책으로도 읽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이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중언어 (bilingual) 표기로, 인도네시아어,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네팔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의 9 종류가 있습니다. 음성은 RAINBOW 사이트에서 들어주십시오. 아울러 이 책자 작성에 맞춰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는 번역을 다시 했기 때문에 데이지에서 재생되는 음성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はじめに>

2003年、国際結婚をしている外国人のお母さんが、「日本では私のことばは必要がない」と言うのを聞きました。両親のことばが子どもに引き継がれるように願って、2009年から多言語電子絵本を制作してきています。

2015年、日本の昔話を子どもに読んでやりたいというお母さんの声がありました。6つの話を9言語に翻訳し、音訳して、マルチメディア形式の電子絵本をつくり、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しています。

2020年、21年、同じものをDVDに入れて、全国の図書館に贈りました。

2022年1月、印刷された本で読みたいという要望が寄せられ、本誌をつくることにしました。二言語（バイリンガル）表記で、インドネシア語、英語、韓国語、スペイン語、中国語、ネパール語、フィリピン語、ベトナム語、ポルトガル語の9種類あります。音声はRAINBOWのサイトから聴いてください。なお、本誌作成にあたり、中国語、韓国語、ポルトガル語は翻訳をし直したので、デジ再生の音声と一部、異なります。

< 멀티미디어 데이지 도서 >

인쇄된 글자를 쉽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독서를 도와주는 전자도서입니다. 화면상의 글자는 음성과 함께 노랑게 강조 표시되기 때문에 어디를 읽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나 속도도 읽는 사람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RAINBOW의 작품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바로 데이지를 재생하는 ChattyBooks로 되어 있습니다.



<マルチメディアデージー図書について>

印刷された文字をすらすら読めない人の読書を助けてくれる電子図書です。画面上の文字は、音声とともに黄色くハイライトしていくので、どこを読んでいるかわかります。文字の大きさや速さも読む人に合わせて、変えることができます。

RAINBOWの作品はパソコン、タブレット、スマートフォンで、すぐに再生する ChattyBooks (チャッティブックス) になっています。



2022年4月

多言語絵本の会 RAINBOW

<https://www.rainbow-ehon.com>



우라시마 타로

글: 하마 나츠코

그림: 요코야마 요헤이

うらしまたろう

ぶん はま なつこ こ
文: 浜 なつ子

え え
絵: よこ야ま ようへい

Urashima Taro	인도네시아어	インドネシアご
Urashima Taro	영어	えいご
우라시마 타로	한국어	かんこくご
Urashima Taro, El pescador Taro Urashima	스페인어	スペインご
浦島太郎	중국어	ちゅうごくご
うらしまたろう	일본어	にほんご
उरासिमा तारो	네팔어	ネパールご
Urashima Taro	필리핀어	フィリピンご
Urashima Tarou	베트남어	ベトナムご
Urashima Tarou	포르투갈어	ポルトガルご



1) 옛날 옛적, 우라시마 타로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 왜 안 잡히지?”

우라시마 타로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왓, 뭔가가 잡힌 것 같았어요.

1) むかし、むかしの こと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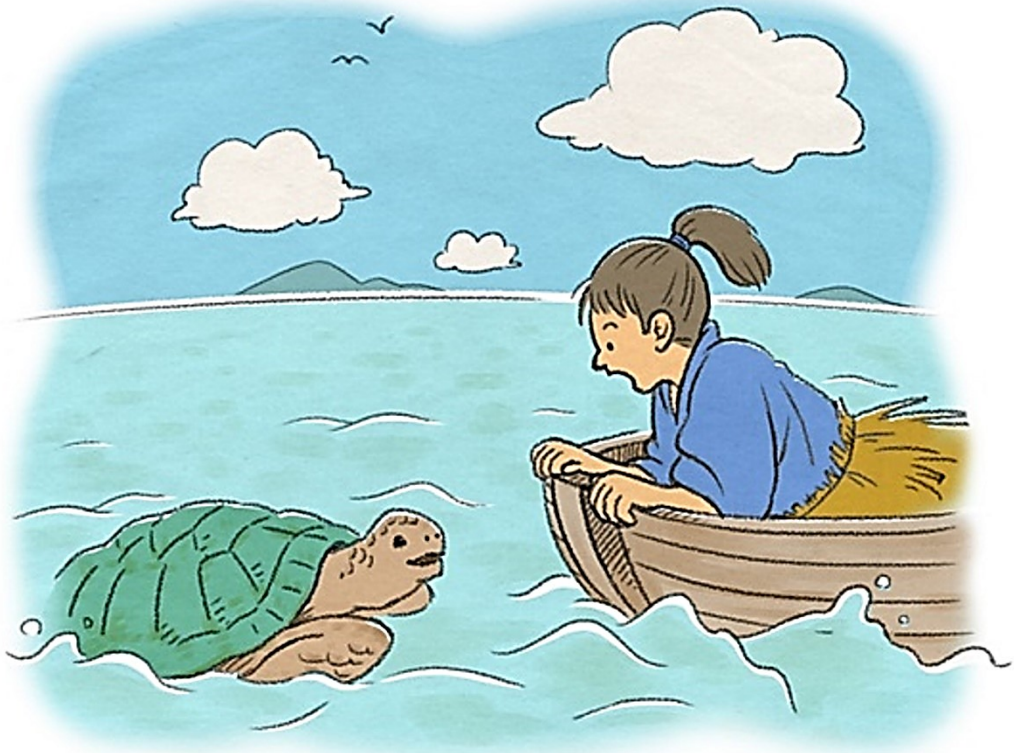
うらしまたろう と いう りょうしが いました。

まいにち、うみで さかなを つります。

ところが、その ひは いつまで たっても つれません。

「ああ、どうして つれないんだろう」

うらしまたろうが つぶやくと、あれっ？ なにかが つれまし
た。



2) 있는 힘껏 그물을 들어올렸더니, 아주 큰 거북이가 걸려 있었어요. 우라시마 타로는 거북이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거북이야, 바다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 후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우라시마 님, 우라시마 님.”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그 거북이였어요.

“저는 용궁 공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당신을 용궁에

데려다 줄게요. 자, 제 등에 올라타세요.”

2) ちからいっぱい、ひきあげると、それは おおきな かめ
でした。

うらしまたろうは かめを にがして やる ことに しまし
た。

「かめさんよ。うみに もどって しあわせに くらすんだ
よ」

その ひ、さかなは いっぴきも つれません でした。

すると、「うらしまさん、うらしまさん」という こえが
しました。

あの おおきな かめでした。

「わたしは りゅうぐうの おとひめさまの つかいです。

あなたを りゅうぐうへ つれて いってあげましょう。

さあ、わたしに のって ください」



3) 우라시마 타로가 거북이 등에 올라타자, 거북이는 바닷속으로 쭈욱 들어갔어요. 마침내 반짝반짝 빛나는 용궁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우와, 저기 좀 보세요. 대구도, 광어도 우라시마 님을 환영하고 있네요.”

거북이는 우라시마 타로를 용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3) うらしまたろうが かめの せなかに のると、かめは
ずんずん うみの なかに もぐって いました。

やがて、きらきら ひかる りゅうぐうが みえて きまし
た。

たくさんの さかなたちが おどって います。

「ほら、たいも ひらめも あなたを むかえて よろこんで
います」

かめは うらしまたろうを りゅうぐうの なかに つれて
いきました。



4) 한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오토 공주님이 우라시마 타로를 마중 나와 주었어요.

“우라시마 타로 님, 거북이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집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우라시마 타로는 오토 공주님과 매일매일 즐겁게 지냈답니다.

4) みた ことも ない かわいらしい おとひめさまが
うらしまたろうを むかえて くれました。

「うらしまたろうさま、かめを たすけて くれて ありがと
う ございます。ここが あなたの うちだと おもって
くださいね」

うらしまたろうは おとひめさまと まいにち、たのしく
くらししました。



5)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우라시마 타로는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답니다. 그러자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오토 공주님이 예쁜 상자를 갖고 와서 말했어요.

“이것은 신비로운 상자입니다.”

“신비로운 상자?”

“네, 당신이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싶다면 절대 이 상자를 열어선 안 됩니다.

5) そうして さんねんが すぎた ある ひの ことです。

うらしまたろうは、ふっと おかあさんの ことを おもいだ
しました。

すると、すぐにでも いえに かえりたく になりました。

おとひめさまは きれいな はこを もって きて いいまし
た。

「これは、たまてばこ です」

「たまてばこ？」

「はい、あなたさまが ここへ また もどって きたいと
おもうのなら、けっして この はこを あけては いけませ
ん」



6) 거북이 등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온 우라시마 타로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집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우라시마 타로는 할머니에게,

“우라시마 타로의 집이 어디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옛날에 우라시마 타로라는 사람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300 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랍니다.”

“네? 300 년이요?”

우라시마 타로는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6) かめの せなかに のって かえって きた

うらしまたろうは びっくりして しまいました。

うらしまたろうの いえが なくなって いたのです。

ちょうど やって きた おばあさんに、「うらしまたろうの

いえは どこですか？」 と ききました。

おばあさんは かんがえてから いいました。

「おかし うらしまたろうと いう ひとが、うみから かえ

って こなかったと いう はなしを きいた ことが あり

ます。でも、さんびやくねんも おかしの はなしですよ」

「ええっ！ さんびやくねん？」

うらしまたろうは おどろいて、 どうして いいのか わから

なく になりました。



7) "참, 이 상자가 있었지." 우라시마 타로는 그 신비한 상자를 활짝 열었어요.

그러자 안에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나왔어요. 우라시마 타로는 머리카락도, 눈썹도 새하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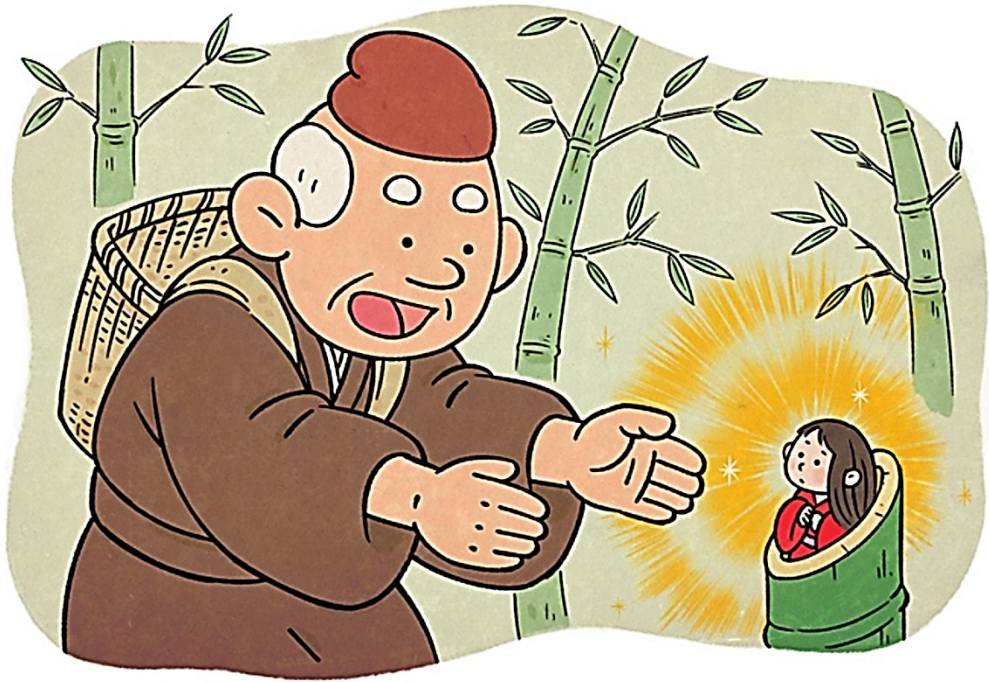
번역: 한수경

7) 「そうだ、この はこが ある」

うらしまたろうは たまてばこを そっと あけました。

すると、なかから しろい くもが もくもくと でて きま
した。

うらしまたろうは かみのけも まゆも まっしろな おじい
さんに なって しまいました。



카구야 공주

글: 하마 나츠코

그림: 요코야마 요헤이

かぐやひめ

ぶん はま なつこ
文: 浜 なつ子

え よこやま ようへい
絵: よこ야마 ようへい

Putri Kaguya	인도네시아어	インドネシアご
Kaguyahime	영어	えいご
카구야 공주	한국어	かんこくご
La princesa de bambú	스페인어	スペインご
月亮公主	중국어	ちゅうごくご
かぐやひめ	일본어	にほんご
बाँसको राजकुमारी	네팔어	ネパールご
Kaguyahime, prinsesa ng kawayan	필리핀어	フィリピンご
Nàng công chúa trong ống tre	베트남어	ベトナムご
Princesa Kaguya	포르투갈어	ポルトガルご



1) 옛날 옛적의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산에 대나무를 하러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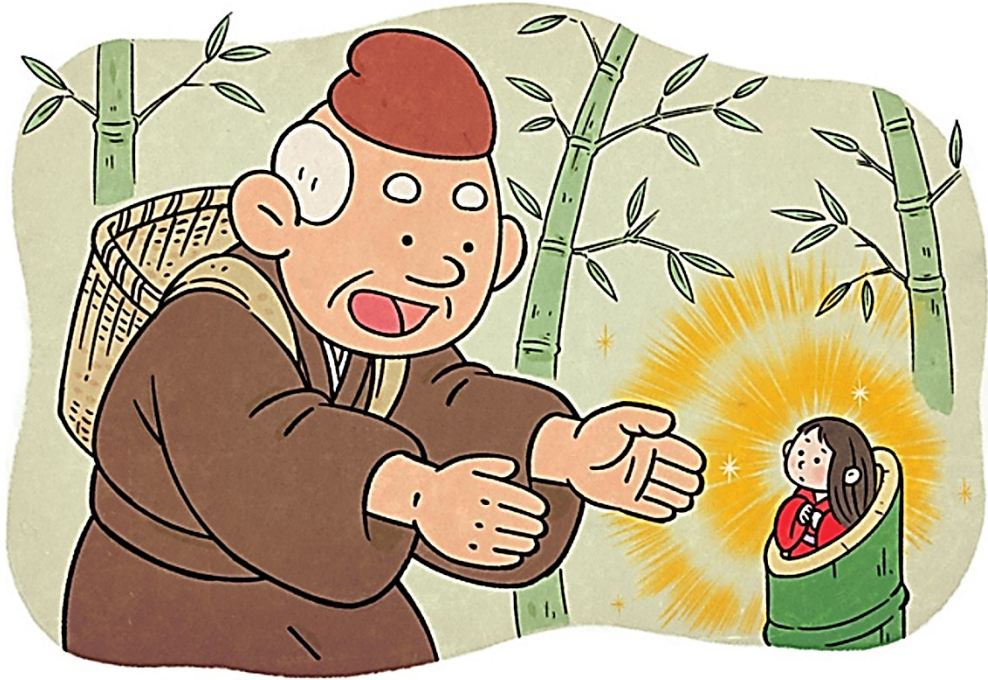
“아니, 저기 있는 대나무에서 빛이 나고 있네. 어디 한 번
베어볼까? 아이쿠!”

1) おかし、おかしの ことです。

おじいさんが、やまへ たけを とりに いきました。

「おや、いっぽんだけ ひかって いる たけが あるぞ。

ちょっと きって みよう。どれ、どっころしよ」



2) “이런! 조그만 여자 아이가 있잖아. 그래. 나랑 할머니가
잘 키워주마.”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살짝 감싸 안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나, 어쩜 이렇게 작고 귀여울까. 영감, 이름은 뭐라고
지어줄까요?”

“카구야 공주로 합시다.”

2) 「おや おや、ちいさな おんなの こが いるぞ。

よしっ、わしと ばあさんで そだてて あげよう」

おじいさんは、その こを そっと てのひらに

つつんで、いえに かえりました。

「まあ、なんて ちいさくて かわいい おんなの こだ
こと。 おじいさん、なまえは どう しましょうか」

「かぐやひめに しょう」



3) 카구야 공주가 온 뒤로 할아버지 집에서는 신기한 일이 있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베어 온 대나무에서 늘 돈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부부는 금세 부자가 되었답니다.

카구야 공주는 쑥쑥 자라, 어느새 어른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는 카구야 공주의 소문이 온 나라 안에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신청하기 위해 왔지만 카구야 공주는 모두 거절해버렸답니다.

3) かぐやひめが きてから、おじいさんの いえでは ふし
ぎな ことが おこりました。

おじいさんが とった たけから、かならず おかねが でて
きたの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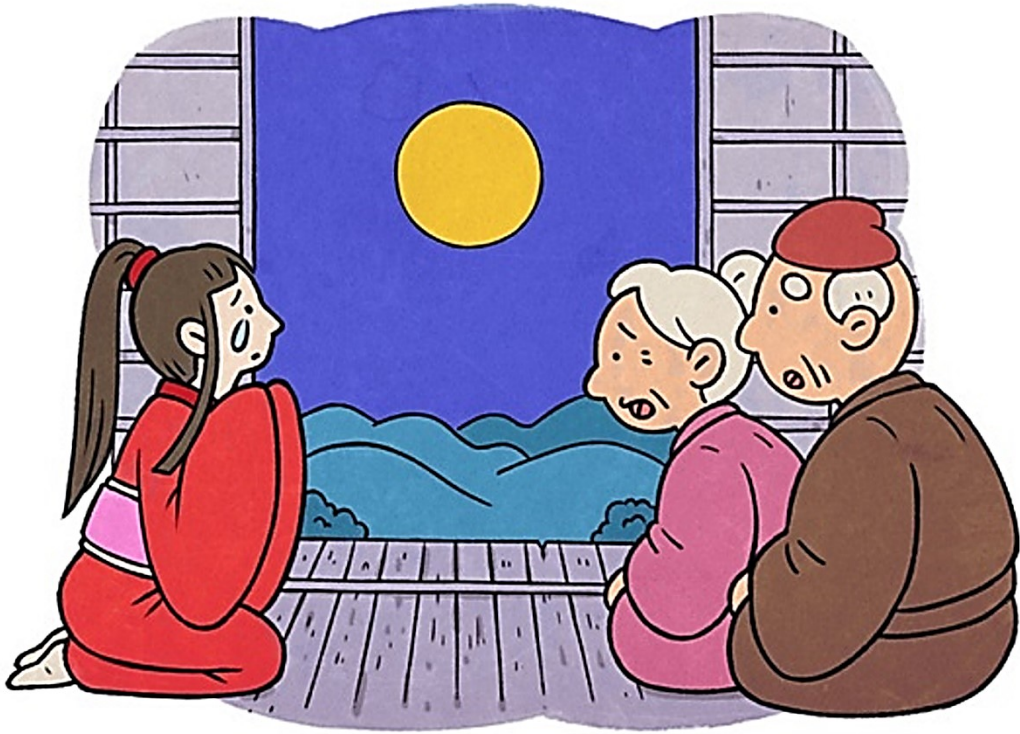
おじいさんたちは、たちまち おかねもちに なりました。

やがて、かぐやひめは、みるみる おおきく なりました。

うつくしい ひめが いる。かぐやひめの うわさは、くに
じゅうに ひろまりました。

たくさんの ひとが けっこんを もうしこみに きました。

しかし、かぐやひめは みんな ことわって しまいました。



4) 삼년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카구야 공주야, 왜 달을 보며 울고 있니?”

“그래, 우리 소중한 카구야 공주야.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는 거야?”

마침내 카구야 공주가 말했어요.

“저는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달나라 사람이랍니다. 보름달이 뜨면 달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카구야 공주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더 있고 싶어서 달나라
임금님께 여기 좀 더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허락받지 못했어요.”

카구야 공주는 두 번 다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너무 슬퍼 울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4) さんねんが たった ころです。

「かぐやひめや、なぜ つきを みて なくのだい」

「わたしたちの たいせつな かぐやひめ、なにが かなしい
のです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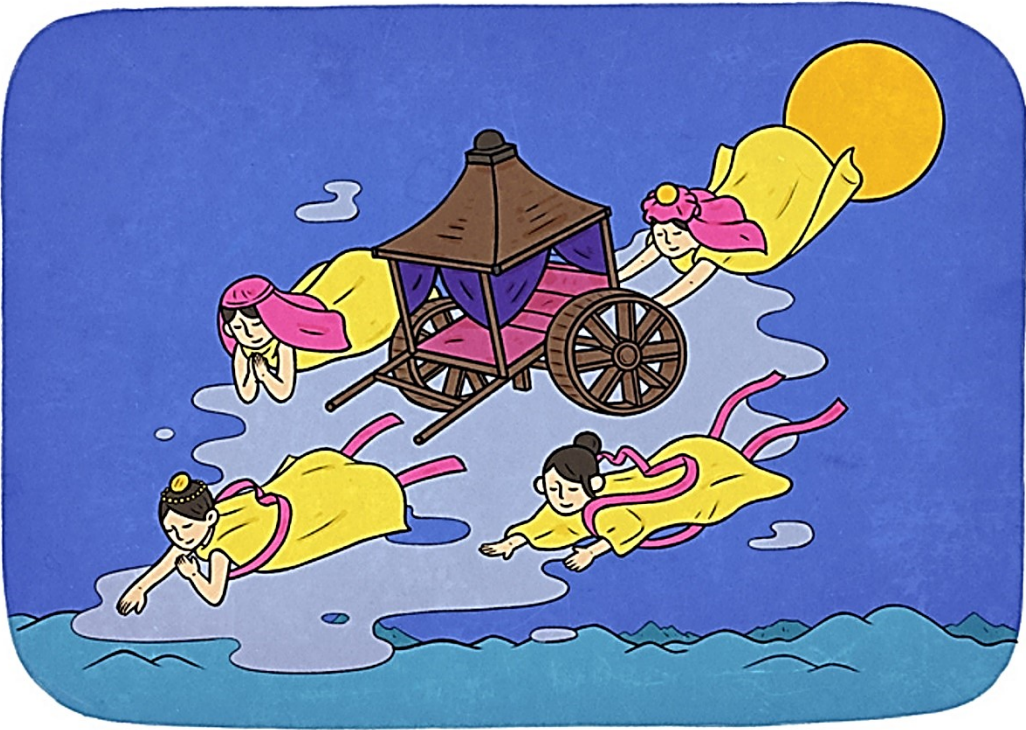
とうとう かぐやひめは いいました。

「わたしは にんげんの せかいの ひとでは ありません。
つきの せかいの ひとです。まんげつの ひに つきに
かえらないと いけないのです」

「かぐやひめや、いったい なにを いったい いるのだい」

「わたしも おじいさんと おばあさんの そばに もっと
いたいのです。つきの おうさまに、もっと ここに いさせ
てくださいと おねがい したのですが、ゆるされません
でした」

かぐやひめは、おじいさんと おばあさんに、もう にどと
あえなくなる ことが かなしくて ないて いたのです。



5) 드디어 보름달이 떴습니다.

카구야 공주 집 주변에는, 달나라 임금님으로부터 공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밤 12시가 되었어요. 집 주변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더니 달나라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왔어요.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활을 겨냥 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아 쓸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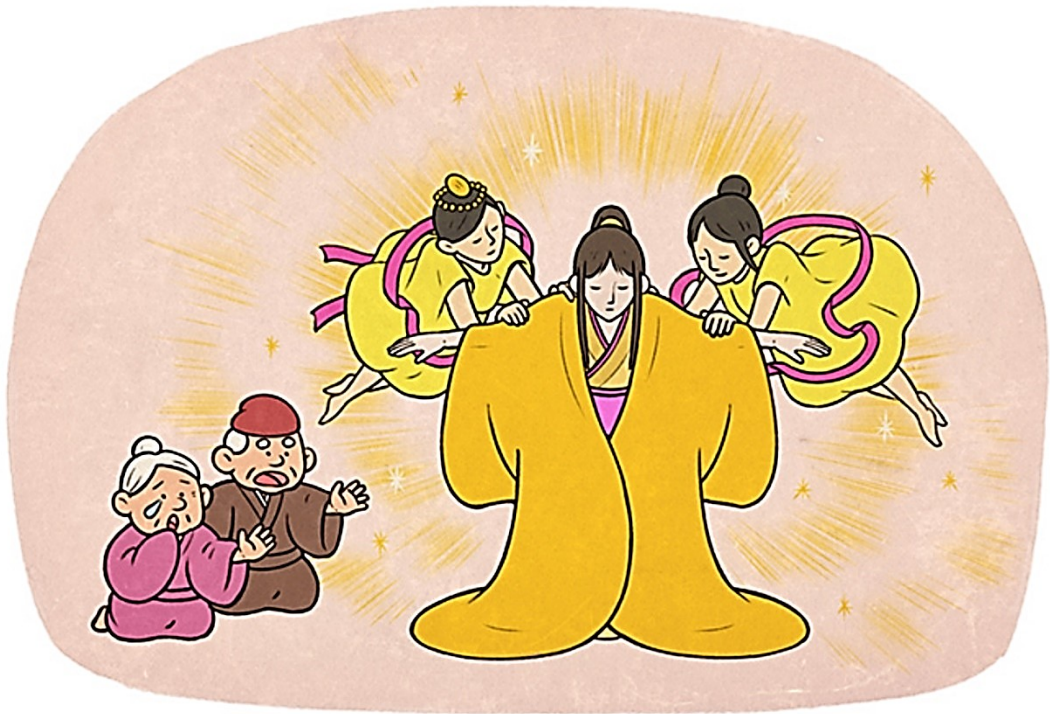
5) どうとう まんげつの ひに なりました。

かぐやひめの いえの まわりは、つきの おうさまから

ひめを まもる ために、おおぜいの さむらいが まちかま
えて います。

よるの じゅうにじ でした。いえの まわりが きゅうに
かがやきました。つきの せかいの ひとが、なんにんも
くもに のって おりて きたのです。

それに おけて さむらいたちは、ゆみを かまえるのです
が、ちからが はいらずに うてません。



6)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이 들어가실 두 분을 보살펴드리지 못하게 돼 정말 죄송해요."

달나라 사람들이 카구야 공주에게 날개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러자 카구야 공주의 마음 속에서 인간의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사라져버렸어요. 카구야 공주는 달나라 사람으로

되돌아간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달나라 사람들과 함께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렸답니다.

번역 : 한수경

6) 「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いままで ありがとう ござ
いました。これから としを とって いく おふたりの お
せわが できず、ごめんなさい」

つきの せかいの ひとが、あまの はごろもを かぐやひめ
に きせました。

すると、かぐやひめの なかから、にんげんの よろこびや
かなしみなどの きもちが きえて しまいました。

かぐやひめは、つきの せかいの ひとに もどったのです。

そして つきの せかいの ひとたちと いっしょに、そら
たかく のぼって 行って しまいました。



삿갓 지장보살

글: 하마 나츠크

그림: 요코야마 요헤이

かさじぞう

ぶん はま なつ子 こ
文: 浜 なつ子

え え
絵: よこ야ま ようへい

Jizou Bercaping	인도네시아어	インドネシアご
The Straw Hat Jizo	영어	えいご
삿갓 지장보살	한국어	かんこくご
Kasa Jizou, Los sombreros de Paja y las estatuas Jizou	스페인어	スペインご
斗笠地藏菩薩	중국어	ちゅうごくご
かさじぞう	일본어	にほんご
खासाजिजों (छात्रेटोपी ओडेको मूर्तिहरू)	네팔어	ネパールご
Ang Mga Jizo at Salakot ni Lolo	필리핀어	フィリピンご
Đội nón cho tượng địa tạng	베트남어	ベトナムご
Estátuas de Jizou	포르투갈어	ポルトガルご



1)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내일이 설날인데, 우리 집엔 먹을 떡 하나 없군요.”

“그러게 말ियो.”

“뭐라도 팔아서 떡을 사야겠어요.”

“자, 이 말린 짚으로 삿갓을 만들어 내다 팝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지런히 삿갓을 만들었어요. 완성된 삿갓은 모두 다섯 개였답니다.

1) おかし、おかしの ことです。

ある ところに、おじいさんと おばあさんが すんで いました。

「あしたは おしょうがつ ですね。でも、うちには おもちも ありません」

「そうだなあ」

「なにかを うって、おもちを かいましょう」

「よし、この ほした くさで かさを つくって うりにいこう」

おじいさんと おばあさんは、せっせと かさを つくりました。かさは、いつつ できあがりました。



2) 할아버지는 샷갓을 들고 장터로 팔러 갔어요.

“샷갓이 왔어요. 샷갓 사세요.”

하지만 샷갓은 한 개도 팔리지 않았어요.

“이런 이런, 눈이 내리네. 할 수 없지. 집으로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눈은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2) おじいさんは、かさを もって まちに やって きました。
た。

「かさは いかがですか。かさは いりませんか」

でも、かさは ぜんぜん うれません でした。

「やれやれ、ゆきが ふって きて しまった。しかたが
ない、うちに かえろう」

おじいさんは、うちに おかって あるきだしました。

ゆきは だんだん はげしく ふって きました。



3) “어, 저기 누가 있네.”

가까이 다가가보니 여섯 분의 지장보살님이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지장보살님, 이렇게 눈을 맞고, 추우시죠? 맞다. 이 삿갓을
쓰세요.”

할아버지는 팔지 못한 삿갓을 지장보살님에게 씌워
주었어요.

“삿갓은 다섯 개인데, 지장보살님은 여섯 분이니 하나가 모자라네. 자, 제 삿갓을 쓰세요.”

3) 「あれ、あそこに だれか いるぞ」

ちかづいて みると、おじぞうさん でした。おじぞうさんが
ろくにん みちに たって いたのです。

「おじぞうさん こんなに ゆきを かぶって、さむいでしょ
う。そうだ、この かさを かぶって ください」

おじいさんは、うれなかった かさを、おじぞうさんに かぶ
せて あげました。

「かさは つつ。おじぞうさんは ろくにん、ひとつ たり
ないなあ。よし、わたしの かさを つかって ください」



4)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멈, 지장보살님이 추울 것 같아 내가 샀것 전부를
지장보살님께 드렸어요.”

“참 잘 했어요. 지장보살님도 분명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4) おじいさんは、うちに もどりました。

「おばあさんや、おじぞうさんが さむそうだったから、わたしは かさを ぜんぶ おじぞうさんに あげて しまった」

「それは よい ことを しましたね。 おじぞうさんも、きっと よろこんで いますよ」



5) 그날 밤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고 있는데, 저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섯 지장보살에게 샷갓을 씌워주신 할아버지 계신가요?
댁은 어디신가요?”

노랫소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 앞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는 바스락 바스락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어요.

5) 그날의 일입니다.

오빠님과 오빠님이 듣고 있으면, 멀리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로くにんの じぞうに すげがさ くれた じいさま おる
か いえは どこかの」

노래는, 오빠님과 오빠님의 うちの まで
ぴたっと とまりました。

そして、がさがさ どーん と いう おおきな おとが
しました。



6) “할멈, 이게 무슨 일ियो. 집 앞에 쌓이며 생선이 잔뜩 쌓여 있어요.”

“어머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섯 분의 지장보살님이 가져다 주신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손 모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이 좋게 살았답니다.

번역 : 한수경

6) 「おばあさん、たいへんだ。うちの まえに おこめやおさかなが たくさん おいて ある」

「あらまあ、いったい どう した ことでしょう」

ろくにんの おじぞうさんが、はこんで きて くれたのです。

おじいさんと おばあさんは、おじぞうさんに てを あわせて、おれいを いいました。

おじいさんと おばあさんは、それからも ずっと なかよく くらしました。



원숭이와 게

글: 하마 나츠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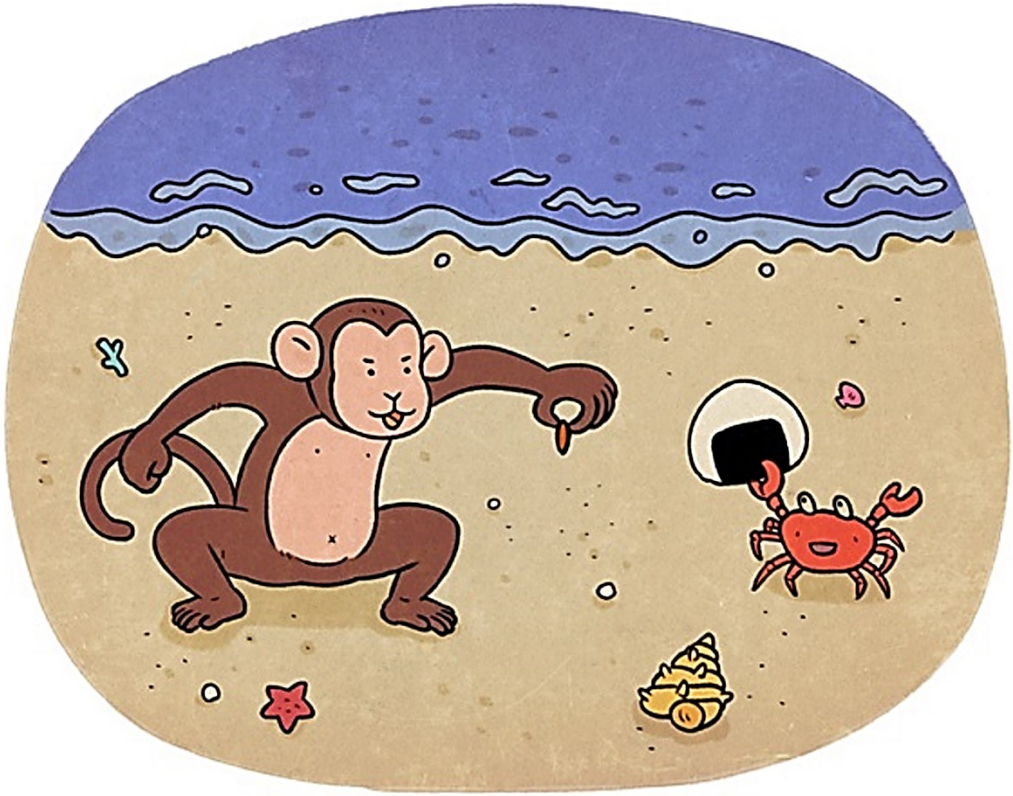
그림: 요코야마 요헤이

ざるかに

ぶん はま なつ子 こ
文: 浜 なつ子

え え
絵: よこ야ま ようへい

Kisah Monyet dan Kepiting	인도네시아어	インドネシアご
Monkey and Crab	영어	えいご
원숭이와 게	한국어	かんこくご
La batalla del mono y el cangrejo	스페인어	スペインご
猴子与螃蟹	중국어	ちゅうごくご
さるかに	일본어	にほんご
बाँदर र गॅंगटो	네팔어	ネパールご
Ang away ng alimango at ng unggoy	필리핀어	フィリピンご
Khỉ và cua	베트남어	ベトナムご
Sarukani	포르투갈어	ポルトガルご



1) 옛날 옛적의 일이에요. 게가 맛있어 보이는 주먹밥을 주웠어요.

지나가던 원숭이가 다가오더니,

“난 주먹밥보다 더 좋은 걸 주웠지.”

“더 좋은 거라니?”

“감씨야. 땅에 심으면 열매가 열리지. 어때, 그 주먹밥이랑 바꾸지 않을래?”

“응, 좋아.”

게는 주먹밥과 감씨를 바꾸었어요.

1) おかし、おかしの ことです。

かにが、おいしそうな おにぎりを ひろいました。

そこへ さるが やって きました。

「おれは、もっと いいもん ひろったぞ」

「もっと いいもんって？」

「かきの たねさ。じめんに うえれば みが なるぞ」

「どうだ、その おにぎり と とりかえっこ しねえか」

「うん。いいよ」

かには、おにぎり と かきの たねを とりかえました。



2) 감씨에서 싹이 나더니 점점 크게 자라 달콤한 열매가 가득 열렸답니다. 게는 정말 기뻐어요.

“자, 따서 먹어볼까?”

그때 원숭이가 나타났어요.

“내가 나무에 올라가 따줄게.”

“그렇게 해줄래?”

원숭이는 나무 오르기 선수예요. 쭈르륵 나무에 올라갔어요.

“아, 맛있어.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게 정말 맛있네.”

“야, 원숭이야. 나한테도 하나 던져 줘.”

“흥, 너는 이 파랗고 딱딱한 감이나 먹어라. 자!”

철썩! 게는 그만 납작하게 찌그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게의 등딱지에서 새끼 게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2) かきの たねは めを だしました。

すくすく おおきく なって、あまい みを たくさん つけ
ました。かには おおよろこびです。

「さあ、とって たべよう」

そこへ さるが やって きました。

「おれが きに のぼって とって やろう」

「そうして おくれ」

さるは きのぼりが とくいです。するするっと きに のぼ
りました。

「ああ、うまい。あまくて やわらかくて うまいぞ」

「おおい、さるさん。わたしにも ひとつ なげて おくれ」

「ふん、おまえには この あおくて かたい かきだ!

それっ」

ぴしっ! かには、ぺしゃんこに なって しんで しまいま
した。すると、かきの こうら から、こがにが たくさん
でて きました。



3) 새끼 게는 어미 게의 복수를 하기 위해 원숭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

“게들아, 어디 가니?”

“안녕, 밤송이들. 우리는 원숭이한테 복수하러 가는 중이야.”

“그럼 우리도 같이 가줄게.”

좀더 가니,

“게들아, 어디 가니?”

“소똥들 안녕. 우리는 원숭이한테 복수하러 가는 중이야.”

“그럼 우리도 같이 가줄게.”

계속 나아가니.

“게들아, 어디 가니?”

“돌절구야 안녕. 우리는 원숭이한테 복수하러 가는 중이야.”

“그럼 우리도 같이 가줄게.”

이렇게 밤송이, 소똥, 돌절구는 새끼 게들의 친구가
되었답니다.



3) こがにたちは、おやがにの しかえしを するために
さるの うちに おかいました。

すると、「かにさんたち、どこへ いくの」

「こんにちは いがぐりさん。ぼくたちは さるに しかえし
に いくのさ」

「では、おいらも なかまに なりましょう」

しばらく すすむと、「かにさんたち、どこへ いくの」

「こんにちは うしの ふんさん。ぼくたちは さるに しか
えしに いくのさ」

「では、わしも なかまに なりましょう」

さらに いくと、「かにさんたち、どこへ いくの」

「こんにちは いしうすさん。ぼくたちは さるに しかえし
に いくのさ」

「では、おらも なかまに なりましょう」

いがぐりと、うしの ふんと、いしうすが、こがにたちの
なかまに なりました。



4) 모두 원숭이 집에 도착했어요. 원숭이는 잠시 외출해 집에 없었어요. 다들 원숭이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밤송이는 화로의 재 속에 숨었어요. 어린 게들은 물이 담긴 통에 숨었고, 소똥은 현관 앞에 털썩 앉아 있었지요.

돌절구는 현관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원숭이가 돌아왔어요.

4) みんなは さるの うちに つきました。

さるは、でかけて いて るすでした。

みんなは さるの かえりを まつ ことに しました。

いがぐりは、いろりの はいの なかに もぐりこみました。

こがにたちは、みずの はいって いる おけに かくれまし

た。うしの ふんは、げんかんの てまえに べったりと

すわって います。いしうすは げんかんの うえに あがり

こみました。

ごとりと おとが して、さるが かえって きました。



5) “아 추워! 얼른 화로에 불을 피워야겠다.”

“빠직!”

화로의 불로 뜨거워졌던 밤송이가 원송이의 엉덩이로 달려들었어요.

“아앗! 빨리 엉덩이를 식혀야겠다.”

원송이는 물이 들어있던 통으로 침범.

“싹둑 싹둑 싹둑.”

그 속에 숨어있던 새끼 계들은 단숨에 원숭이의 몸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아야아아앗!”

원숭이는 현관에서 밖을 향해 후다닥 후다닥.

미끄덩.

그 순간, 소똥을 밟고 파당.

“자, 지금이야. 얍!”

현관 위에서 돌절구가 원숭이 위로 뛰어 내렸어요.

원숭이는 돌절구에 깔려 납작하게 되고 말았답니다.

번역 : 한수경



5) 「ああ、さむい、さむい。はやく いろりて、ひに あた
ろう」

「バチーン」

いろりの ひで あつく なって いた いがぐりが、さるの
おしりに とびつきました。

「あちっ！！ はやく おしりを ひやさないと」

さるは みずの はいって いる おけに ザブン。

「ジョキ ジョキ ジョキ ジョキ」

その おけに かかれて いた こがにたちが、いっきに

さるの からだを きりだしました。

「いたたたたっ！」

さるは げんかん から そとに むかって スタコラ スタ
コラ。

「つるーん」

その とたん、うしの ふんを ふんで スッテンコロリン。

「それ、いまだ！ えいっ」

げんかんの うえから、いしうすが さるの うえに とびお
りました。

さるは いしうすに つぶされて、ペしゃんこに なって
しまいました。



두루미 아내

글: 하마 나츠크

그림: 요코야마 요헤이

つるのよめさま

ぶん はま
文: 浜 なつこ

え
絵: よこやま ようへい

Istriku, Si Burung Bangau	인도네시아어	インドネシアご
The Crane Bride	영어	えいご
두루미 아내	한국어	かんこくご
Tsuru no yomesama o la novia-grulla	스페인어	スペインご
仙鶴妻子	중국어	ちゅうごくご
つるのよめさま	일본어	にほんご
चुरूनो, योमेसामा (बकुल्ला, दुलही)	네팔어	ネパールご
Ang Napangasawang Ibong Tagak	필리핀어	フィリピンご
Nàng vợ tiên hạc	베트남어	ベトナムご
Tsuru no Yomesama - A noiva Grua	포르투갈어	ポルトガルご



1)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자, 오늘도 산에 나무를 하러 가볼까.”

푸드덕 푸드덕 푸드덕.

하늘에서 뭔가 하얀 것이 떨어졌어요.

“어, 두루미 아니야? 가엾게도 화살에 맞았네.

도와줘야겠다.”

젊은이는 두루미에게서 화살을 빼내 깨끗한 물로
닦아주었어요. 그러자 두루미는 기력을 되찾았어요.

“자, 이제 하늘로 돌아가렴.”

젊은이가 두루미를 하늘 높이 들어올리자 두루미는 힘차게
날아갔어요.

1) おかし おかしの ことです。

ある やまの むらに、わかものが ひとりで すんで いま
した。

「さあ、きょうも やまへ きを きりに いくと するか」
バサ バサ バサ

そらから しろい ものが おちて き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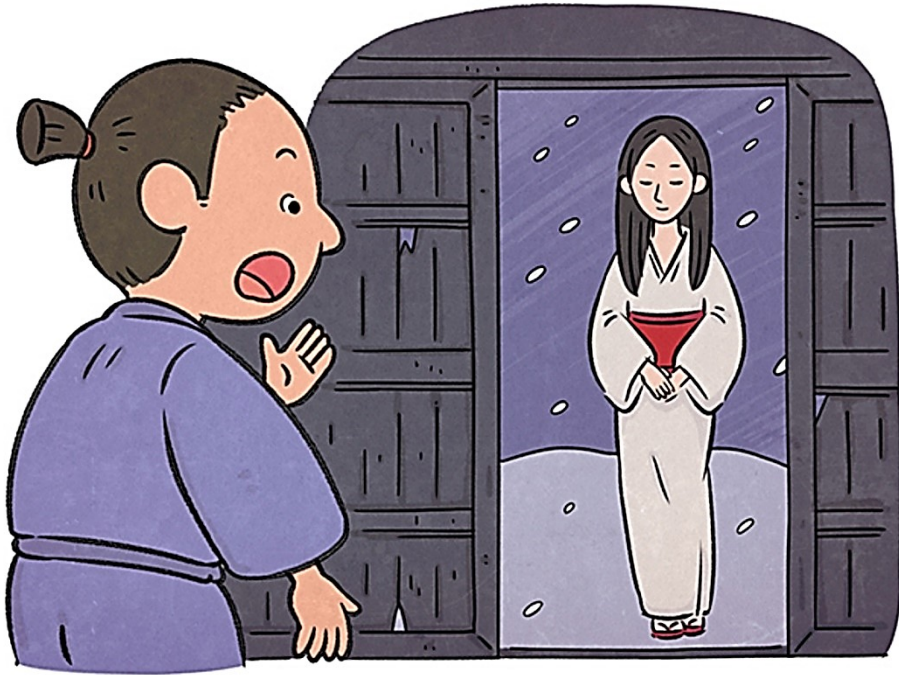
「おや、つる じゃないか。かわいそうに、やが ささって
いるぞ。どれ、たすけて やろう」

わかものは つるの やを ぬいて、きれいな かわの みず
で あらって あげました。

そうすると つるは げんきに なりました。

「ほうら、そらに かえるが いい」

わかものが つるを そらに おかって もちあげると、つる
は、いきおいよく とんで いました。



2)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밤이었어요. 푹푹.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눈이 오는 밤에 누구일까?”

젊은이가 문을 열었더니 하얀 피부의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어요.

“저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 주세요.”

“무슨 말이오? 이렇게 가난한 집으로 시집 올 사람이 있을 리가 없소.”

“가난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 주세요.”

젊은이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여인을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인은 젊은이의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어요.

2) それから なんにちか たった ばん、トン トン

トン とを たたく おとが しました。

「こんな ゆきの よるに、だれ だろう？」

わかものが とを あけると、いろの しろい きれいな

おすめさんが たって いました。

「わたしを おまえさまの よめさまに して ください」

「なにを いうんだ。こんな びんぼうな いえに よめの

くる はずがねえ」

「びんぼう など なんでも ありません。どうか わたし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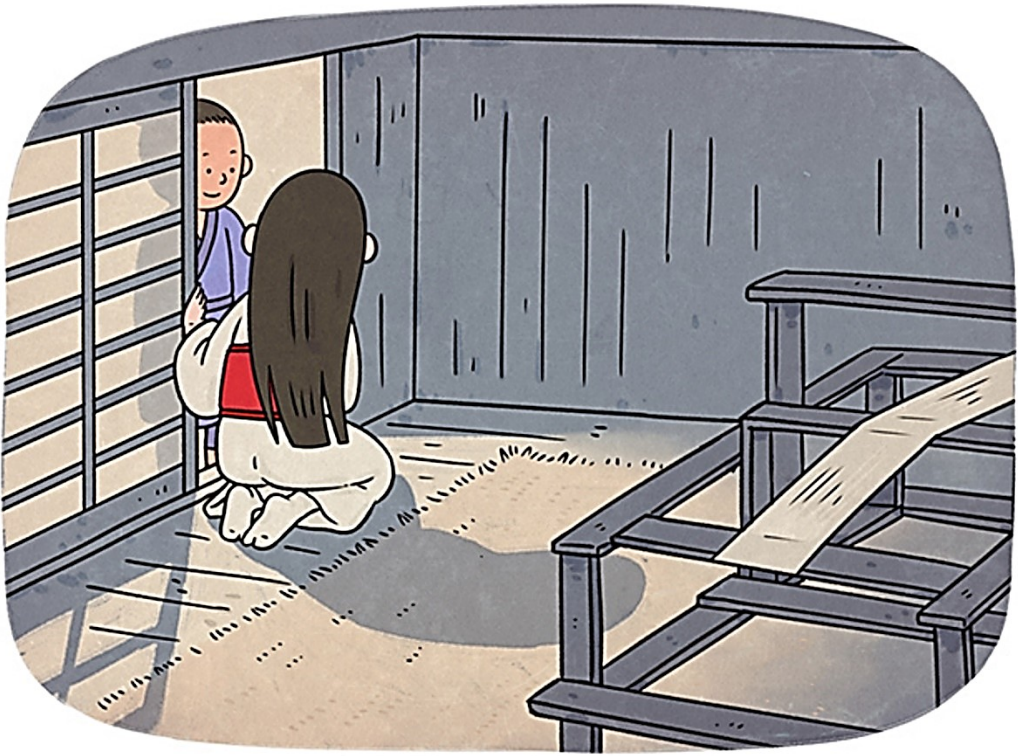
おいて やって ください」

わかものは ゆめを みて いるような きもちで、おすめさ

んを いえの なかに いれて あげました。

おすめさんは わかものの よめさまに なり、しあわせに

くらして いました。



3)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지금부터 옆에 있는 오두막에서 옷감을 짜겠습니다.

옷감을 짜는 동안 절대 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알겠소. 약속하리다. 절대 안 보겠소.”

덜컹 덜컹 덜컹 덜컹. 옷감을 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답니다.

“이것이 제가 짠 옷감입니다.”

“아, 당신 왜 이렇게 야윈 것이요. 고생이 많았구려. 그런데

어찌 이리 고운 옷감을 지었단 말이오. 마을에 팔러
다녀와야겠소.”

3) ある ひの ことです。

「わたしは これから となりの こやで ぬのを おりま
す。ぬのを おって いる あいだは ぜったいに なかを
みないで くださいね」

「わかった。やくそくする。ぜったいに みない」

ぱったん ぱったん ぱったん ぱったん

ぬのを おる おとが きこえて きました。

そうして、みっかが すぎました。

「どうぞ、これが わたしの おった ぬのです」

「ああ おまえ。ずいぶんと やせて しまって。さぞ つか
れただろう。でも、なんて きれいな ぬのなんだ。

よし、これを まちへ うりに いこう」



4) 옷감이 너무 아름다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중에는 멋진 기모노를 입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영주님께 바치고 싶은 옷감일세. 하나 더 짜줄 수 있겠나? 돈은 얼마든지 내겠네.”

젊은이는 아주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옷감은 영주님의 기모노가 된다 하오. 옷감을 하나 더 부탁하셨소.”

“하나 더요? 알겠어요. 이번에도 절대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4) あまりの うつくしさに たくさんの ひとが うって
くれと いいました。

その なかに、りっぱな きものを きた ひとが いまし
た。

「これは、とのさまに さしあげたい ぬのだ。もう いちま
い おって おくれ。おかねは いくらでも だす」

わかものは おおよろこびで いえに かえって きました。

「あの ぬのは、おとのさまの きものになる ことに
なった。あと いちまい ほしい そうだ」

「もう いちまい ですか。わかりました。こんども こやの
なかを ぜったいに みないで くださいね」

そうして よめさまは、こやの なかに はいって いきまし
た。



5) 그런데 옷감을 짜는 소리가 왠지 힘이 없었어요.

덜.....컹 덜.....컹

덜.....컹 덜.....컹

“무슨 일이지? 어째 소리에 힘이 없네.”

젊은이는 걱정이 된 나머지 그만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두루미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의 깃털을 뽑아 옷감을 짜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니, 너는!”

5) ところが、ぬのを おる おとに げんきが ありませ
ん。

ぱっ……たん ぱっ……たん

ぱっ……たん ぱっ……たん

「どうしたんだろう。よわよわしい おとだ」

わかものは しんぱいで、がまん できずに、とを あけて
しまいました。

すると、そこには いちわの つるが いました。じぶんの
はねを ぬいて ぬのを おって いたのです。

「あ、おまえは！」



6) “네, 저는 전에 당신이 도와준 그 두루미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셨으니 더
이상은 당신 곁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두루미는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버렸답니다.

번역 : 한수경

6) 「はい。わたしは おまえさまに たすけて いただいた
つるです。あの ときから、おまえさまを おしたい して
いました。でも、この すがたを みられては もう おしま
いです。おそばに いる ことは できません。さようなら」
そう 言って、つるは そら たかく とんで 行って しま
ったそうです。



꽃 피우는 할아버지

글: 하마 나츠키

그림: 요코야마 요헤이

はなさかじい

ぶん: はま なつこ
文: 浜 なつ子

え: よこやま ようへい
絵: よこ야마 ようへ이

Kakek Pembuat Pohon Berbunga Old Man Hanasaka -Flower bloomer Grandpa	인도네시아어	インドネシアご
	영어	えいご
꽃 피우는 할아버지	한국어	かんこくご
Hanasakajii o el abuelo que hizo florecer el árbol	스페인어	スペインご
开花爷爷	중국어	ちゅうごくご
はなさかじい	일본어	にほんご
हानासाकाजिई (फूल फुलाउने हजुरबा)	네팔어	ネパールご
Ang Matapat na Lolong nagpasibol ng mga Bulaklak	필리핀어	フィリピンご
Ông lão làm hoa nở	베트남어	ベトナムご
O velhinho que fazia florescer	포르투갈어	ポルトガルご



1)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하양이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있었는데, 제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었습니다.

1) おかし、おかしの ことです。

ある ところに、しょうじきもの の おじいさんと

おばあさんが いました。

ふたりには、しろ と いう なまえの いぬが いて、

こどもの ように、かわいがって いました。



2) 어느 날 할아버지와 같이 산에 간 하양이가,

“여기 파세요, 멍멍. 여기 파세요, 멍멍.” 하며 짖었어요.

할아버지가 그곳을 파보니 금화가 잔뜩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하양이를 빌리러 왔어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하양이를 빌려주었지요.

2) ある ひ、おじいさんと やまへ いった しろが、
「ここ ほれ、わん わん。ここ ほれ、わん わん」と
ほえました。おじいさんが ほって みると、おかねが たく
さん でて きました。

それを みて いた となりに すむ よくばり じいさん
が、しろを かりに やって きました。

しょうじきものの おじいさんは しろを かして あげまし
た。



3)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하양이에게,

“자, 짚어봐. 금화는 어디 있어?”

하양이는 밭에서 “멍멍” 하고 짚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곳을 파보니 똥과 함께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들이 나왔어요.

화가 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하양이의 머리를 때렸어요.

“깨갱!”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하양이는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3) よくばり じいさんは しろに おかって、

「さあ、ほえろ。こばんは どこだ」

しろは はたけで、「わん わん」と ほえました。よくばり

じいさんが、ほって みると ぷーんと、くさい ものが

でて きました。

おこった よくばり じいさんは しろの あたまを たたき
ました。

「きゃん！」

ひとこえ ないで、しろは しんで しまいました。



4)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양의 무덤에 작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는 순식간에 자라 큰 나무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나무로 절구를 만들었지요.

그 절구로 떡을 만드니 계속해서 쌀이 나왔어요. 부엌은 금세 쌀로 가득 찼답니다.

4) しょうじきものの おじいさんと おばあさんは しろの
おはかに ちいさな きを うえました。

きは みるみる おおきく なり、ふたりは その きで
うすを つくりました。

その うすで おもちを つくと、つきから つぎへと
おこめが でて きました。

だいどころは おこめで いっぱいに なりました。



5) 곧 옆집의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절구를 빌리러 왔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떡을 만드니 뱀이 스르륵 스르륵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으악, 기분 나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화가 나 절구를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5) すぐに となりの よくばり じいさんが うすを
かりに やって きました。

よくばり じいさんが もちを つくと、へびが ぬるぬると
でて くるでは ありませんか。

「うわっ、きもち わるいっ！」

よくばり じいさんは おこって うすを もやして
しまいました。



6) "소중한 하양이의 절구가 재가 되어 버리다니."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는 크게 슬펐어요. 재를 모아
하양이의 무덤에 뿌려주었지요.

그러자 무덤 근처 여기저기에 꽃이 피어났어요. 할아버지는
나무에 올라, "꽃 피우는 할아버지, 꽃 피우는 할아버지. 자,
죽은 나무에 꽃을 피워보세."라고 말하며 재를 뿌렸어요.
벚꽃이며 복숭아꽃이 한 가득 피어났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영주님이,

“호오, 이거 참 장관이구나.”

하며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에게 상을 내렸어요.

6) 「だいじな しろの うすが はいに なって しまっ
た」

しょうじきものの おじいさんは がっかり。

はいを あつめて、しろの おはかに まいて あげました。

すると、そこらじゅうに はなが さきました。おじいさんは

きに のぼって、「はなさかじい、はなさかじい。さあさ、かれ

きに はなを さかせましょう」と いいながら、はいを

まきました。さくらや ももの はなが いっぱい さきまし

た。

そこに、おとのさまが とおりかかりました。

「これは みごとだ」

おとのさまは しょうじきものの おじいさんに ごほうびを

あげました。



7) 이를 본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재를 모았어요. 재빨리 나무에 올라, “꽃 피우는 할아버지, 꽃 피우는 할아버지. 자, 죽은 나무에 꽃을 피워보세.” 라고 말했어요.

영주님은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거기 꽃 피우는 할아버지. 죽은 나무에 꽃을 피워보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휘이, 압!”

그러나 꽃은 하나도 피지 않았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자꾸자꾸 재를 뿌렸어요. 그 재가 그만 영주님의 눈과 코에도 들어가고 말았어요.

“너는 가짜구나. 당장 붙잡아라!”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번역 : 한수경

7) これを みた よくばり じいさんは、はいを あつめま
した。すぐに きに のぼって、「はなさかじい、 はなさかじ
い。さあさ、かれきに はなを さかせましょう」と いいま
した。

おとのさまは、よくばり じいさんに いいました。

「そこの はなさかじい。かれきに はなを さかせて
みよ」

「ははっ、かしこまりました。そうれ、ほーい、ほい」
ところが ちっとも はなが さきません。

よくばり じいさんは どんどん はいを まきました。

その はいが、おとのさまの めや はなの なかに はいっ
て しまいました。

「おまえは にせものだな。とっとと つかまえろ」

よくばり じいさんは とうとう ろうやに いれられて
しまいました。

バイリンガル にほんむかしばなし

かんこくご にほんご
韓国語と日本語

ぶん はま こ
文：浜 なつ子

ねん ち ばけん う りっきょうだいがくだいがくいんしゅうりょう さんけいしんぶん ふ じんめんとんどう きしゃ
1955年千葉県生まれ。立教大学大学院修了。産経新聞婦人面担当記者

へ ちよしょ あさひやまどうぶつえん ものがたり かどかわ ぶん
を経てフリーに。著書に『旭山動物園12の物語』（角川ソフィア文

こ てきせいかつ こうだんしゃぶん こ
庫）『アジア的生活』（講談社文庫）などがある。

え よこやまようへい
絵：横山陽平

おおさかげいじゆつだいがくそつ おも さくひん な がみ
大阪芸術大学卒。主な作品に『ビワイチ!』『泣き神さまサワメ』『おた

ようかい ぶんけんしゅっぱん なつ かどかわがくげいしゅつ
すけ妖怪ねこまんさ』（ともに文研出版）『夏のサイン』（角川学芸出

ばん しゅっぱん
版）『おばっちのブイサイン』（くもん出版）などがある。

ほんやく
翻訳：ハンスギョン

ほん し せいさくきょうりょくしゃ じゆん ふ どう
本誌制作協力者（順不同）

ブッククラブえほんだな!、ハンスギョン、かつべさちこ よこたすみよ
勝部幸子、横田住代、

しのはらゆう み なかたに あらきまさこ ひいろのりこ いしはらひろこ
篠原優海、中谷そのか、新木雅子、日色則子、石原弘子

たげんご えほん かい
<多言語絵本の会RAINBOW>

もくてき
【目的】

- ① 外国につながる子どもたちの母語、母国語の保持、育成
- ② 日本語で育つ子どもたちの外国語への興味、関心の拡大
- ③ 外国につながる人たちの社会参加の機会

ねが かつどう
を願って活動しています。

かつどうないよう
【活動内容】

たげんご がっこう としょかん
多言語よみきかせ（学校や図書館などで）

たげんご でん し えほん せいさく
多言語電子絵本の制作

(RAINBOW のホームページサイトで公開)



<http://www.rainbow-ehon.com>

じゅしょうれき
【受賞歴】

ねん はくほうしょう
2017年 博報賞

















ねん ぶん か ちようちようかんひようしょう
2018年 文化庁長官表彰

ねん こうろうしょう こ か ていきよくちようしょう
2019年 厚労省子ども家庭局長賞

れんらくさき
【連絡先】

nihongo_crayons@yahoo.co.jp

RAINBOW ^{かくげんご}の各言語ページ

にほんご		えいご		ちゅうごくご	
かんこくご		ポルトガルご		スペインご	
インドネシアご		フィリピンご		ベトナムご	
ネパールご		タイご		ロシアご	
その他のアジアのことば		その他のヨーロッパのことば		アラビアご	
スワヒリご					

^{たげんご}でんし ^{えほんぶんご}多言語電子絵本文庫

1	バイリンガル にほんむかしばなし	^ご インドネシア語と ^ご にほんご日本語
2		^{えいご} 英語と ^ご にほんご日本語
3		^{かんこくご} 韓国語と ^ご にほんご日本語
4		^ご スペイン語と ^ご にほんご日本語
5		^{ちゅうごくご} 中国語と ^ご にほんご日本語
6		^ご ネパール語と ^ご にほんご日本語
7		^ご フィリピン語と ^ご にほんご日本語
8		^ご ベトナム語と ^ご にほんご日本語
9		^ご ポルトガル語と ^ご にほんご日本語
10	^{みんわ} ロシア民話 ^{きん さかな} 金の魚のはなし	^ご 日本語、 ^ご ロシア語、 ^{えいご} 英語、 ^{ちゅうごくご} 中国語、 ^ご ポルトガル語

